

# GIST 교원창업기업 (주)리셀, 45억 규모 시리즈 A 투자 유치... 차세대 태양전지 사업화 '청신호'

- GIST 원천기술 기반 차세대 태양전지 필름 기술력 인정받아 성장자금 확보... 광주연합기술지주·산업은행·포스코기술투자 등 참여
- 과기정통부 '유니콘 프로젝트' 선정 이어 사업화 탄력... 저조도·건물·모빌리티·영농형 태양전지 시장 진출 본격화



▲ 시리즈 A 투자 유치 기념 (주)리셀 임직원 단체사진. 총 45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기념해 (주)리셀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(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) 이광희 대표이사

광주과학기술원(GIST·지스트, 총장 임기철)은 교원창업기업이자 차세대 태양전지 필름 제조 전문 기업인 (주)리셀(대표이사 이광희 신소재공학과 초빙석학)이 총 45억 원 규모의 시리즈 A(Series A)\*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.

이번 투자 유치는 (주)리셀이 보유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은 성과로, 연구성과를 실제 제품과 시장으로 연결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.

\* 시리즈 A(Series A): 창업 초기 단계를 넘어 제품과 기술의 시장성을 검증한 기업이 사업 확장과 시장 진출을 위해 유치하는 성장 단계 투자이다.

지난 5일 최종 클로징(투자 절차 완료)을 마친 이번 시리즈 A 투자에는 ▲광주연합기술지주 ▲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(주) 등 대학 기술지주회사를 비롯해 ▲기술보증기금 ▲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, 그리고 ▲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▲현대투자파트너스 ▲포스코기술투자 등 민간 투자사까지 폭넓게 참여했다.

아울러 (주)리셀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사업

인 '유니콘 프로젝트'에 선정돼 총 18억 원의 정부 지원을 확보한 바 있다. 여기에 이번 시리즈 A 투자 유치까지 더해지면서 기술 사업화와 생산체계 구축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.

(주)리셀은 GIST 연구진이 축적해 온 태양전지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가볍고 유연하며 투명한 특성을 갖춘 '차세대 태양전지 필름'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.

해당 필름은 딱딱하고 무거운 기존 태양전지와 달리 곡면에도 부착할 수 있는 높은 유연성과 초경량 특성을 갖추고 있다. 또한 실내조명 수준의 저조도 환경에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.

무엇보다 필름 형태의 소재를 연속으로 가공하는 '롤투롤(Roll-to-Roll)' 공정을 적용할 수 있어 대량생산과 가격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.

이러한 기술적 강점을 바탕으로 (주)리셀은 차세대 태양전지 필름의 사업화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.

특히 ▲저조도 광전지 ▲건물 일체형 태양전지 ▲모빌리티 일체형 태양전지 ▲영농형 태양전지를 중심으로 시장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.

차세대 태양전지 필름은 실내조명이나 흐린 날씨와 같은 저조도 환경에서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AI(인공지능)·IoT(사물인터넷) 센서와 웨어러블 기기용 전원 기술로 활용될 수 있으며, 건물 외벽과 창호 등에 적용하는 건물 일체형 태양전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형 건축물 구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.

또한 차량과 드론, 선박 등 다양한 이동 수단에 적용하는 모빌리티 일체형 태양전지는 독자적인 전력 생산을 가능하게 하며, 비닐하우스와 스마트팜 등 농업시설에 활용하는 영농형 태양전지는 농업 생산성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이들 핵심 사업 분야의 시장 확대를 위해 (주)리셀은 이번 투자금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 공정을 고도화하고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한편, 전문 인력을 확보해 사업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.

이광희 대표이사는 "이번 투자 유치는 리셀이 보유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의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"라며 "양산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"고 말했다.